작품명 : Clout

디자이너 브랜드들은 1~2년 앞선 패션을 시장에 내놓습니다.

그러나 디자이너 브랜드가 시장 수요를 예측해서 생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.

인기가 많을 수록, 생산량을 늘렸다가 판매 시점을 맞추지 못해 재고로 남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.

이렇게 재고가 된 옷들은 3년 내에 판매되지 않으면 소각되거나, kg 당 몇 천원 단위로 제3국에 수출될 운명에 처해있습니다.

Clout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디자이너 옷들이 버려지는 현실이 슬펐습니다.

기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, 다시금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.

Clout은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옷을 발굴해 여러분께 선보입니다.

Clout은 디자이너 의류의 운명을 바꾸는 ‘착한 소비’로 나아가자는 브랜드입니다.

Clout 앱서비스 디자인 링크 : <https://bit.ly/3425DU1>